
2025년도

명예해양수산관 2/4분기 활동실적

2025. 06.



한국원양산업협회

KOFCC 해외수산협력센터



목 차



I . 명예해양수산물 제도 운영현황	1
II . 2025년 2/4분기 활동실적	2
III . 명예해양수산물별 보고내용	4
1. 사모아	4
2. 피지	7
3. 파푸아뉴기니	12
4. 아르헨티나	17
5. 인도네시아	22
6. 가나	27
7. 세네갈	34
8. 뉴질랜드	40
9. 모리셔스	44
[참고] 명예해양수산물 현황 및 연락처	51

□ 개 요

- (추진 배경) '09년부터 원양어업 거점 및 진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정보 수집, 현지 진출기업 지원 등을 위하여 명예해양수산물 위촉운영
 - * (근거 : 원양산업발전법 제22조) 주요 연안국에서 원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등을 명예해양수산물로 위촉, 연안국 자료·정보수집 등의 임무 부여
- (주요 임무) 해외 주재국의 원양·수산물 관련 자료·정보 수집, 투자 환경 조사, 대한민국 국민의 연안국 투자에 대한 조언 등

□ 운영 현황

- 원양산업 또는 수산업 종사자 등 교민 위주로 '25년 현재 총 9개 지역에서 9명 활동
- 명예해양수산물 활동실적보고
 - 각 명예해양수산물별 활동내용을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수요자들에게 정보제공
 - (정기보고) 명예해양수산관은 매익월 10일까지 해외수산협력센터 보고, 센터는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수시보고) 해난사고 등 긴급 상황 및 해양수산부, 업계 요청 정보·자료에 대한 수시보고

□ 활동 실적 (총괄)

○ 명예해양수산관 활동실적 보고 (정기보고 27회, 수시보고 1회)

성명	담당 지역	제출일	보고 내용
오시영	사모아	[4월] 2025.04.09	• KBS, 다큐멘터리 촬영 위해 아메리칸 사모아 방문
		[5월] 2025.05.08	• 날개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어획량
		[6월] 2025.06.09	• 아메리칸사모아 어장 재개에 따른 참치 산업 보호 및 지역 경제 지속성 확보 방안
김종태	피지	[4월] 2025.04.10	• 미국과의 관세 협상 추진 • EU 블랙리스트 해제 위한 조치
		[5월] 2025.05.12	• 수산운영센터 설립으로 불법어업 대응 강화 • 일본 ROV 장비로 해양범죄 대응 강화
		[6월] 2025.06.10.	• KMI주최, 한·남태평양 컨퍼런스 행사 참여
정승화	파푸아 뉴기니	[4월] 2025.04.09	• PNG 수산업 전반의 위기 상황 • 선망 산업 진출 추진과 정치, 행정적 한계
		[5월] 2025.05.08	• PNG 참치의 수출 행태
		[6월] 2025.06.10.	• PNG 수산물 수출 동향 • PNG 수산업이 처한 현실 보고
이상우	아르헨티나	[4월] 2025.04.09	• 전자감시를 통해 불법조업 외국 선박 제재 강화
		[5월] 2025.05.10	• 아르헨티나 최대 수산물 가공지 마르 델플라타에서 어획물 자체 가공 포기
		[6월] 2025.06.11.	• 어업종사 노동자들의 파업이 전국의 항구노조로 확산 • 2025년 오징어 낚시 시즌 종료

성명	담당 지역	제출일	보고 내용
박상천	인도네시아	[4월] 2025.04.09	• 품질인증 강화, 어류공급 점검 등 식품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
		[4월] 2025.04.18	• 한국, 인도네시아 수산물 수출시설 11업체 추가승인
		[5월] 2025.05.06	• 수산물 수출절차 전면 디지털화
		[6월] 2025.06.03.	• 인니 수산부, 전국 어항 운영수준 대폭 강화
이윤홍	가나	[4월] 2025.03.31	• 가나해역에서 해적들 중국선원 3명 납치 • 정부, 카누 어민에게 금어기 한시 면제
		[5월] 2025.04.30	• 가나 제10차 OOC 컨퍼런스 참가
		[6월] 2025.05.31.	• 재가나 한국대사관 직원들과 Tema 해변정화운동 참여
김점봉	세네갈	[4월] 2025.04.08	• 선박 입출항 동향, 유류가격 동향 등
		[5월] 2025.05.07	• 갈치 어획량 급감으로 교민 생계 위협 • 다카르 항에서 차량 절도 발생
		[6월] 2025.06.05.	• 다카르 항구 선박에서 화재 발생 • 프랑스, 다카르 항구에 위치한 ‘콩트르아미랄 프로테’ 구역 세네갈에 반환 결정
윤정환	뉴질랜드	[4월] 2025.04.07	• 양식 산업 연 30억 달러 목표 • 남태평양 어업 회의에서 저층 트롤리 규제 강화 차단
		[5월] 2025.05.09	• 대형 트롤어업의 환경피해로 인해 규제 강화 요구
		[6월] 2025.06.06.	• 외래 해조류 94억 달러 피해 확인 • 하우라키 만(Hauraki Gulf) 저층 트롤 통로 제안 보류
이동춘	모리셔스	[4월] 2025.04.09	• 일본, 모리셔스에 10억엔 규모 지원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장관, 농수산 분야 협력 방안 논의
		[5월] 2025.05.08	• 선박 입출항 동향, 유류가격 동향 등
		[6월] 2025.06.06.	• 왜래 해조류 94억 달러 피해 확인 • 하우라키 만(Hauraki Gulf) 저층 트롤 통로 제안 보류

1. 사모아

◆ 4월 보고서

가.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 격
2025. 4. 8.	Clipper Oil (American Samoa)	\$2.97 gallon

나.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황다랑어	(라운드)	\$1,750 M/T	Star-kist Samoa Co.제공
눈다랑어	(라운드)	\$1,550 M/T	
가다랑어	(라운드)	\$1,550 M/T	

다. 해양·수산업 동향

□ 다랑어 어획 동향

- 금월 아메리칸 사모아 및 연근해어장인 쿡아일랜드 어장에서의 날개다랑어 0.5-1톤, 황다랑어 및 눈다랑어는 0.2-0.5톤의 어획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임.

□ 서태평양어업협의회, 연방 자금 지원 확대 촉구

- 2025년 3월 31일, 서태평양어업관리위원회(WPRFMC)는 미국 상무부에 태평양 도서 지역 어업 관리 및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 확대를 요청했음. 예산 삭감으로 장학금 프로그램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지역 어업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또한, 위원회는 일부 해양보호구역 규정이 권고안과 상충된다고 밝혔고, 관련 규정은 행정명령에 따라 재검토 중임. 아울러 저층

어류 관리 종을 13종에서 6종으로 축소하고 나머지는 모니터링 대상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함.

라. 기타사항

- KBS, 아메리칸사모아에서 원양어업사 다큐 촬영, 5월 방송 예정
 - KBS는 오는 5월 방송 예정인 한국 원양어업사와 이에 기여한 인물들을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4월 1일부터 4일까지 부산 방송국 제작진이 아메리칸사모아를 방문함. 이번 촬영에서는 사모아어장 개척, 제21지남호 침몰 사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며, 선원묘지, 스타키스트 참치공장 등 관련 현장을 중심으로 촬영이 진행됨.

◆ 5월 보고서

가.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 격
2025. 5. 7.	Clipper Oil (American Samoa)	\$2.86 gallon

나.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황다랑어	(라운드)	\$1,550 M/T	Star-kist Samoa Co.제공
눈다랑어	(라운드)	\$1,350 M/T	
가다랑어	(라운드)	\$1,390 M/T	

다. 해양·수산업 동향

- 아메리칸 사모아 및 연근해 쿡아일랜드 어장에서의 날개다랑어 0.5~1톤, 황다랑어 및 눈다랑어는 0.3~0.7톤의 어획율을 보임.

◆ 6월 보고서

가.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 격
2025. 6. 8.	Clipper Oil (American Samoa)	\$2.71 gallon

나.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황다랑어	(라운드)	\$1,550 M/T	Star-kist Samoa Co.제공
눈다랑어	(라운드)	\$1,350 M/T	
가다랑어	(라운드)	\$1,350 M/T	

다. 해양·수산업 동향

- 금월 아메리칸사모아 및 연근해 어장인 쿡아일랜드 어장에서 평균 날개다랑어 0.5~1톤, 황다랑어 및 눈다랑어 0.3~0.5톤의 어획율을 보이고 있음.

라. 기타사항

- 미국 어장 재개: 아메리칸사모아의 경제와 환경을 위한 조치
 - 아메리칸사모아 정부(ASG)는 최근 미국령 태평양 어장 재개와 관련한 논의를 통해 참치 산업의 중요성과 이번 조치의 지역적 영향을 명확히 하고자 공식 입장을 발표함. 해당 발표는 천연자원 담당 상임고문 타오타시 아치 솔리아이가 워싱턴 D.C.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 및 하원의원과 면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 어장의 재개는 아메리칸사모아 민간 일자리의 83%를 차지하는 참치 산업을 보호하고, 지역 수출의 99%를 차지하는 경제 기반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미국에서 유통되는 참치 캔 4개 중 1개가 아메리칸사모아산일 정도로 그 비중은 큼.

- 환경 보호는 계속 유지될 것임. 보호 섬 반경 50마일 이내는 여전히 어업이 금지되며, 산호초, 해양 포유류, 거북이 등은 연방법에 따라 보호받음. 미국 어선은 국제 수산위원회의 보존 기준도 철저히 준수함.
- 아메리칸사모아는 태국, 베트남 등 저비용 경쟁국에 비해 높은 생산 비용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과의 지리적 접근성, 면세 혜택, 높은 환경·노동 기준을 강점으로 삼아 미국 식량 안보에 기여하고 있음. 특히 미 국방부 및 USDA의 조달 기준을 충족하며 국가 급식 시스템에도 공급하고 있음
- 이번 어장 재개는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미국 어선의 경쟁력을 유지하며, 환경 보존과 공정한 글로벌 경쟁이라는 균형 속에서 추진되고 있음. ASG는 주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를 당부하고 있음.

2. 피지

◆ 4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동원산업	동원 208호	2025-04-06/	선원교체, 기관정비	수바항	참치연승선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04. 10.	TOTAL	\$1,354/MT	MGO	내주변동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ALBACORE	10kg상	\$2,300/ ton	로인가공용(PAFCO)

다. 기타사항

□ 미국과의 관세 협상 추진

- 피지 정부는 미국이 피지 수출품에 부과한 32%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진행 중임. 부총리 Kamikamica 장관은 피지가 미국산 제품에 평균 1.8%의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상호 관세 인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 피지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 또는 0%까지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임.

□ EU 블랙리스트 해제 위한 조치

- 피지는 2019년 EU 블랙리스트 등재 이후 세금투명성과 국제 조세 기준 준수를 위한 개혁을 추진 중임. 세관당국은 정보 교환 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피지 정부는 향후 12~18개월 내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음.

□ 관광산업 부진과 경제동향

- 올해 초 피지 관광산업은 방문객 수가 3.8% 감소하며 부진하게 출발함. 호주와 뉴질랜드 방문객 감소가 주요 원인이며, 경제는 국내 소비와 투자 활성화 덕분에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물가상승률은 1.4%로 낮아졌고, 은행 유동성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BBNJ 협정 비준 필요성 강조

- 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공해 생물다양성 협정(BBNJ) 비준을 추진 중이며, 피지는 이 협정이 해양 생태계 회복력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전통지식과 토착민 참여가 포함된 포용적 해양관리도 핵심 요소로 언급되었음.

□ 어업면허 확대 및 청년 참여 증가

- 피지 수산부는 약 900건의 신규 어업면허를 발급하며 지역 어민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젊은 세대의 참여가 늘고 있으며, 정부는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법률 개정과 교육을 확대하고 있음.

□ 해양오염과 참치어업 관리 노력

- 피지는 해양오염 문제 해결과 참치어업 관리를 연계하며, 생분해성 어구 사용 등 지속가능한 어업방식을 모색 중임. 공해에서의 남획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 수집 및 어획 패턴 분석도 진행하고 있음.

□ 중국과의 직항편 협상 추진

- 피지와 중국은 양국 간 직항편 신설을 논의 중임. 현재 중국에서 피지로의 관광객 수는 낮은 편이며, 직항편 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중국대사는 직항편이 관광 촉진과 양국 경제 협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 해사안전청 법률 검토 승인

- 피지 내각은 해상안전청(MSAF)의 기능 강화를 위한 해사 관련 주요 법률 3건(2009년, 2013년 제정)의 전면 검토를 승인함. 이번 검토는 해상운항의 안전성과 행정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하며, 관련 기관의 감독 역량 강화를 기대하고 있음.

◆ 5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한성기업	한성38호	2025-04-21/ 2025-04-26	휴식 및 정비	수바항	참치독항선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05.09.	TOTAL	\$1,375/MT	MGO	내주변동

나.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ALBACORE	10kg 상	\$2,200/ ton	로인가공용(PAFCO)

다. 기타사항

- 피지 · 통가 · 나우루, 생물다양성 관리 위한 다국적 워크숍 개최
 - 피지 환경부 장관 주최로 열린 워크숍은 생물다양성 전략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SDGs 달성과 해양 보호를 위한 재정적 방안 (녹색세, 환경부담금 등)을 모색함. 총 9,080달러 예산으로 지역 해양 보호와 생태계 복원을 위한 태평양 2050 전략을 지원함

- SPC 회의서 태평양 어업 정책 논의
 - 피지를 포함한 태평양 27개국이 태즈메이니아에서 수산 · 양식 정책을 논의함. 남획,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 주요 이슈를 다루며 SPC 수산 생태계 전략 방향 수립에 기여할 예정임. 이 결과는 수산장관 회의 및 지역 포럼으로 이어질 계획임.

- 피지 경찰, 일본의 ROV 장비로 해양범죄 대응 강화
 - 피지 경찰은 일본과 UNODC의 지원으로 원격 수중탐사 장비 (ROV)를 도입함. 고해상도 영상 및 잠수정 활용으로 해양범죄 대응 역량이 강화되었으며, 경찰관들은 ROV 사용법 훈련을 이수함. 일본은 추가 안보기지 개발 지원도 약속함.

- 피지, 필리핀 대사관 설립 승인
 - 피지는 필리핀의 수바 대사관 설립 요청을 승인함. 양국은 1973년 수교했으며, 이번 대사관 설립을 통해 노동력 이동, 기후변화, 안보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 피지, 수산운영센터 설립으로 불법어업 대응 강화

- 피지 수산부는 국가 최초의 수산운영센터를 설립해 불법어업(IUU) 감시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첨단 선박 모니터링, 위성이미지 기술이 접목되며, 지역 어업의 지속가능성과 해양보호 강화에 기여할 예정임.

◆ 6월 보고서

가.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6. 9.	TOTAL	\$1,392/MT	MGO	내주변동

나.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ALBACORE	10kg상	\$2,100/ ton	로인가공용(PAFCO)

다. 해양 수산업 동향

□ 피지 해상안전청의 규제 개혁 및 해상안전 강화

- 피지 해상안전청(MSAF)은 선박의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고, 노후 선박의 해역 진입을 제한하는 등 해상안전 및 환경보호를 강화하는 개혁안을 발표함. 선장과 기관장에만 집중된 사고 책임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해운사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임.

□ EU와의 IEPA 협의 및 참치수출 확대 전략

- 피지는 EU와의 협의를 통해 IEPA의 글로벌소싱 조항을 활용, EU 시장으로의 참치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 이를 통해 피지는 원자재 수입 후 현지 가공을 거쳐 무관세·무쿼터로 EU시장에 접근 가능. 이는 수산업 활성화, 해안지역 고용창출, 투자 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

라. 기타사항

□ 2025 KOSOPFF 컨퍼런스 행사지원

-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KMI)은 2025년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피지 수바에서 제9회 한·남태평양 수산 포럼(KOSOPFF)을 개최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음. 이번 포럼은 2019년 이후 6년 만에 현지에서 열린 행사로, 한국과 남태평양 도서국 간 수산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음
- 국내외 수산 관련 기관 및 남태평양 지역 대학 관계자 등 약 70명이 참석했으며, 수산자원 관리, 기후변화 대응, 불법어업 방지, 노동환경 개선, 기술협력 등을 주제로 정책적 접점과 파트너십 강화를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음

3. 파푸아뉴기니

◆ 4월 보고서

가.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2025.04.08.	TWL Logistics Ltd	K3.2515=USD 0.799 (부가세 10% 포함 안됨)	Diesel

나. 해양수산업 동향

□ 국내 연안 수산업의 곤란

- 파푸아뉴기니(PNG)에서 생산되어 수출되는 대표 수산물 중 하나인 GOP(파푸아만)산 새우는, 일본 시장의 경기 침체와 환율 상승으로 인해 수입업체들의 구매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2025년에는 해당 수산물의 수출시장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중국에서 고가로 매입하던 활어 바다가재(Tropical Rock Lobster)도 중국이 자원보호란 명목 하에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서 그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견해삼은 금년 7월에 채취를 허가할 것으로는 보이나, 이 또한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연근해 어민. 주민들의 삶은 지속적으로 팍팍한 실정임. 게다가 불법 채취가 만연한 가운데, 정부에서 조차 제재를 못하는 실정임.

□ 중국인들의 진출

- 지난주 4월4일 현 수산부 장관 및 수산청장. 부 청장, 이사회 회장 등 많은 수산청의 고위 관계자들은 현지 Milin Bay주를 방문하여 그곳에 중국인이 주 정부와 함께 투자하여 진행하는 활어장을 방문하였음. 동 활어 사업은 현 수산청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임에는 확실하나, 현지인들의 문화를 고려치 않고 진행하는 관계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중국인들은 조업 선 진출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기타사항

□ PNG 선망산업 진출 추진 현황 및 정부 주도 하의 전략적 관심 동향

- 지난 2월 활동 보고서에 적시한 PNG내 선망 사업 진출에 대한 관심은 수산청에서 만든 법인으로서 1) FISHERIES CAPITAL LTD. 뿐 아니라, 몇몇의 2) 자원(금광)을 개발하는 회사, 3) 국가기관(통산부), 심지어는 4) 국민연금공단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 이는 PNG 수산청의 의지일 뿐만이 아닌 국책 사업으로서 진행되는 현 정부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으나, PNG 현실상 정부 및 국가기관이 추구하는 이러한 사업에 진출을 위한 법적 제도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지는 요원한 상태임.
-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3월 초에 동 Domestic 선망산업 진출을 행정적 지원을 위한 (PNG 국적 선망 조업선 지원) 관계 부처의 미팅이 있었음. PNG는 이런 식의 미팅은 비밀을 유지하고 업계

와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관계로,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소식통에 의하면 여러 등급을 나누어서(현실을 고려하여) 등급별 지원과 혜택에 차이를 두는 제안서를 채택한 것으로 보임. 수산청 당국과 관심을 가진 다른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등이 있으므로, 동 사업은 조만간 실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지난 예(RD의 사업 진출: 대략 30년이 되었다고 함)를 본다면, 초기에 결정하여 추진하는 기업에 혜택이 많을 것으로 보임.

□ 정치·행정 혼란 속 PNG 선망산업 추진의 현실과 한계

- 현재 PNG는 집권당의 경제 정책 실패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새로운 긍정적인 국가 발전상을 보여줘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이러한 시도는 의미가 있어 보이나, 무너진 행정부의 여러 부서가 연결되어서 추진해야 하는 이러한 사업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국익에 맞게 실행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 동 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선, 현 정부하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제껏 보아온 PNG 공무원의 태도를 고려할 때 이것마저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업은 많은 고용 창출이 보장되는 관계로 PNG에서는 현실적으로 적합한 사업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임. 금일 현 수상에 대한 불신임안(Vote of Nonconfidence)이 국회에서 상정되어 이번주는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임.

◆ 5월 보고서

가.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2025.05.08.	TWL Logistics Ltd	K3.1215=USD 0.7692 (부가세 10% 포함 안됨)	Diesel

나. 해양수산업 동향

□ Fisheries Capital Ltd. 의 배경

- FCL은 PNG 수산청의 오랜숙원 사업으로, 자국 참치자원을 자국 어선으로 직접 조업하고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수산 기업임. 이는 PNG 정부가 국부 창출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1차 산업 중심의 남태평양 국가들이 겪고 있는 산업 구조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고용 창출과 부가가치 증대를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음. FCL은 단순한 어업을 넘어 2차, 3차 산업으로의 발전을 시도하고 있으며, 자국민이 사회 간접자본(SOC)에 직접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나아가 PNG는 이 사업을 통해 남태평양 지역 전체의 수산 산업 발전을 선도하고자 하며, 다른 섬나라들의 참여까지 이끄는 ‘큰형님’ 역할을 기대받고 있음.
- 이는 사기업의 형태이나, 100% 국가(수산청)의 투자로 운영되고 있음. 또한, 실질적으로 그동안 활동 방향 및 단계별 계획도 전무한 상태로 몇 년간의 시간을 허비하였으나, 근래에 들어서 그 활동의 방향 등이 구체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부쩍 눈에 띄임.

□ PNG 참치의 수출 행태

- PNG에서 생산된 참치는 거의 전량이 EU로 수출되고 있으며, 참치에 대한 MSC를 획득한 PNG의 참치 업계는 “0” rate의 관세 혜택을 받고 있어서 그 마케팅에 많은 도움을 받아오고 있었음.
- 이에 더해, 현재 FCL을 통한 새로운 Project를 통하여, 기존의 EU만이 아닌 미국시장(World Mart) 진출을 위한 마케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참치 캔 공장의 신설 및 원재료 확보를 위해 다른 남태평양의 국가와 협력을 꾀하려는 모습도 보임. 이에 공조하는 또는 협조하는 남태평양의 국가로는 FSM, 마셜 아일랜드, 키리바시 등이 있음. 하지만 키리바시의 경우 중국인들에 의한 조업이 만연한 상태임. 이러한 발전 기획을 추구하는 남태평양 국가들 중, 인력, 전기, 물, 대지를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참치 원어 공급이 자체적으로 가능한 국가는 PNG가 유일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볼 때, PNG는 수산업 발전을 위한 마땅한 방향으로 남태평양의 리더로서 향해를 시작할 것으로 보임.

◆ 6월 보고서

가.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2025. 6. 8.	TWL Logistics Ltd	K2.9965=USD 0.7183 (부가세 10% 포함 안됨)	Diesel

나. 해양수산업 동향

□ PNG 수산업이 처한 현실

- PNG 수산업은 선박의 노후화로 인해 조업 효율과 경제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으며, 자국 선원 양성에도 실패해 직업으로서의 매력도 떨어지고 있음. 정부와 수산청의 전문성과 지도력 부재는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중국인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해 고수익 자원이 고갈되고 자원 가치가 하락하면서 자국민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음. 현재의 구조적 한계와 정책 부재로 인해 PNG 수산업은 단기간 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PNG 수산물 수출 동향

- 새우 - PNG의 대표 수산물인 대하, 타이거, Endeavour 새우는 2024년 10월 이후 일본 수출이 중단되었음. 주요 원인은 엔화 약세, 에콰도르산 양식 새우의 공급 과잉, 인도네시아산 자연산 새우의 재진입 등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임. 일본 시장에서 PNG 새우의 입지가 크게 좁아지며, 고가 정책 유지가 어려운 상황임.
- 바다가재 - Western Province의 바다가재(Tropical Rock Lobster)는 중국의 금수조치와 국제 시장 가격 하락으로 큰 타격을 입었음. 기존에는 USD 70~80/kg이던 단가가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고, 현재는 태국, 홍콩, 싱가포르로 수출이 이어지고 있지만 수익성은 급감하였음.

- 생선부레 - 고부가가치 품목이던 생선 부레는 2025년 들어 가격이 50% 이상 하락했함. 물량은 적지만 고가 거래로 인해 중국인의 투자가 집중된 분야이며, 시장 축소로 인해 PNG 내 관련 업계도 위축되는 추세임.
- 견해삼 - 2021년부터 해삼 금어기를 지속 중인 수산청은 아직도 수확 재개 시점을 확정하지 않음. 이로 인해 불법조업과 암거래가 만연하며, 인도네시아를 경유한 홍콩 수출 사례도 발생했음. 이는 제도 미비, 공무원의 부패, 정책 혼선이 맞물린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평가됨.
- 기타잡어 - 가오리는 꾸준히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한치는 생산량이 적어 PNG 내수 소비용으로 활용되고 있음. 기타 잡어류는 과거 외국 어선의 진입 실패 후 PNG 국민 식량 안보 차원에서 내수 중심 수산업으로 안착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부문으로 평가됨.
- 진흙게 - 2021년 이후 해삼 대체 수산물로 부상한 진흙게는 연 1,000톤 이상 공급이 가능한 고수익 품목으로, 주로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음. 평균 단가는 USD 15~35/kg이며, PNG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어민들이 진입했지만 유통·수출 구조는 90% 이상 중국계가 장악하고 있음. 싱가포르 등지에서도 수요가 있지만, 남획과 교통 한계로 자원 고갈 우려가 있으며,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중국식 무한경쟁 모델의 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음.

4. 아르헨티나

◆ 4월 보고서

가.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04.09.	Epsol YPF (국영기업)	Usd 1.37 /Liters	MGO	달러화 정책을 진행하면서 월 인플레이션 3%미만으로 안정세

나. 해양·수산업 동향

-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공동수역에서 어업협정 체결/어장개방
 - 해양전선 합동기술위원회(CTMFM)는 결의안 CTMFM No. 3/2025를 발행하여 2025년 4월 1일부터 공동어업구역에서 오징어(*Illex argentinus*)의 어획 시즌 시작을 승인함. 이 결정은 해당 지역의 자원의 존재에 대한 사용 가능한 정보를 기반으로 Río de la Plata 및 해양 전선 조약의 80 조 및 82 조에 따라 이루어짐.
 - 이 조치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간의 공동 모니터링의 맥락에서 어업의 질서 있고 지속 가능한 관리를 보장하고자함으로 결의안은 양국의 외무부에 전달되었음.

- 아르헨티나에서 불법 조업으로 외국 선박 벌금 부과
 - 아르헨티나 정부는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으로 운항하는 외국 선박에 대한 전자 탐지, 식별 및 제재를 달성함으로써 불법 조업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단계를 밟았음. 아르헨티나 해군 헌(PNA)과 수산 자원 및 수산 사무국의 공동 작업을 통해 상당한 벌금이 부과되었음.
 - 선박이 국가 규정에 따라 불법 조업의 징후인 이러한 항해 조건을 유지했는지 확인한 후 검사 프로토콜이 활성화되어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음. 아르헨티나 해군 본부 인 해안 경비대 건물의 동일한 해상 교통 관제 센터에서 Nestor Kiferling 총리가 이끄는 팀은 해당 기관에서 잘 알려진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 그의 명령에 따라 바누아투에서 편의의 깃발을 달고 분명히 중국 선박이 수행한 작업에 대한 명확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공했음.

◆ 5월 보고서

가.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05.09	EPSOL YPF (국영기업)	USD 1.32 /Liters	MGO	달러공시시세와 암달러시장의 가격차가 5%대로 비등해지면서 유류시세도 낮아짐

나. 해양·수산업 동향

□ 수산물 가공산업의 위기

- 현지 최대 수산물 가공지역인 마르델플라타(Mar del Plata)에서 조업 및 재가공과 관련된 수산업은 갈수록 사업성이 붕괴되고 있고 생산 라인의 수익성과 손실이 유감스러운 결과를 초래하는 징후들을 계속 보이고 있음.
- Arbumasa Pesca Austral (3대 수산기업) 회사는 4척의 선단의 출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가공 근로자들을 무기한 휴직을 권고하고 최저임금으로 계약에 명시된 기본 혜택만 복상기로 하였음. 따라서 일반 선원과 선장 및 기관장 등을 포함한 60명 이상의 승무원들도 직격탄을 맞게 되었음.
- 얼마 전부터 선박을 보유한 기업들이 가공을 포기하고 가져온 부두에서 생선을 통째로 팔고 있고 Arbumasa가 관리하는 Ardapez 가공 공장 또한 원료를 배송하지 않기로 결정함. 4월 한 달 동안 30명의 마지막 농성중이던 노동자들도 해고 정리되었음. 현지에서는 기업들이 어획물을 자체적으로 가공하지 않고 원료 상태로 그대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부분의 가공업체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오징어 통계

- 2025년 4월 15일까지 아르헨티나의 오징어 총 어획량은 122,954톤에 달했으며, 이 중 지거선단은 75척의 선박으로 106,603톤을 어획하고 하루 평균 21톤의 수확을 기록했음. 이는 2024년 시즌의 하루 평균 24톤보다 다소 낮은 수치임. 어획량의 84%는 1~3월 사이 44° S 이남의 남부 관리구역에서 나왔고, 북부 구역에서는 3월 26일 이후

69척이 16,894톤을 어획해 하루 평균 23톤을 기록함. 냉동 트롤 선단은 16,352톤을 보고했으며 대부분이 남부 해역에서 어획되었음.

- 기술 보고서에 따르면 14주차에 최대 206척의 지거선이 44° S 이남 EEZ 인접 해역에 집중되었고, 분쟁 중인 영국 EEZ 내에서도 107척이 활동했음. 4월에는 39-42° S 외봉에서 55척이 8,625톤을 어획했으며, 이 지역 오징어는 부에노스아이레스-북파타고니아 어군(SBNP)에 해당하며 대부분 성숙한 개체였음. 15주차 기준 누적 어획량은 2024년 전체 어획량의 97%에 도달했으며, 2023년 동기 대비 두 배에 이르는 수준임.

◆ 6월 보고서

가.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6. 10.	EPSOL YPF (국영기업)	USD 1.15 /Liters	MGO	달러 외환 안정세로 유류 및 수입품 가격이 인하하기 시작

나. 해양·수산업 동향

- 마르델플라타 어업종사 노동자들의 파업이 전국의 항구노조로 확산
 - 아르헨티나 수산업 주요 항구 도시인 마르 델 플라타, 푸에르토 마드린, 푸에르토 데세아도에서 어업 및 항만 노동자들이 임금 30% 삭감 시도에 반발해 대규모 시위를 벌였음. 노조들은 “우리는 지출이 아니라 생산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임금 삭감 반대와 단체협약 수정을 거부하며 도로 봉쇄, 항구 진입 차단, 평화 시위 등을 전개함.
 - 이번 사태는 높은 임금과 낮은 생산성으로 인한 국제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한 사용자 측의 조정 시도에 대한 집단적인 저항으로, 노동자들은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닌 아르헨티나 수산업 전체의 미래가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단결을 이어가고 있음.

□ 2025년 illex argentinus 오징어 낚시 시즌이 종료

- 2025년 아르헨티나 오징어(Illex argentinus) 조업 시즌이 6월 10일부로 공식 종료되었음. 국립수산연구개발원(INIDEP)은 과학 보고서 No. 22/2025와 No. 23/2025에 기반해 자원의 생물학적 상태와 어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원 보존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더 이상의 조업 연장은 불가하다고 판단함.
- 이번 시즌 동안 아르헨티나 지거선단은 총 162,154톤을 어획했으며, 주로 44° S 이남 해역에서 조업이 이뤄졌음. 트롤선단도 20,839톤을 추가로 어획함. 대부분의 수컷 오징어는 성숙단계에 있었지만 암컷은 미성숙 상태가 많아, 자원 재생산을 고려한 조기 종료가 결정된 것임. 이번 조치는 아르헨티나 오징어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장기적 보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결정으로 평가됨.

□ 외국 선박에 승선한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의정서

- 아르헨티나 해군(PNA)은 국가안보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외국 어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탐지하기 위한 새로운 의정서를 발표함. 이 문서는 국제 인권 기준과 국내법, ILO 협약 188호 등을 기반으로 공해상에서 인신매매를 감지할 수 있는 운영 지침을 제공하며, 승무원의 정서 상태, 노동 조건, 문서 상태 등 주요 지표를 통해 인신매매 정황을 파악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의심 정황 발견 시 즉각적인 지원과 연방 사법 당국 개입을 통해 대응하게 됨.
- 이 의정서는 기존 규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인신매매라는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5. 인도네시아

◆ 4월 보고서

가.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2025.04.07	Pertamina	Rp16,000 (\$0.99) per Liter	디젤유 (MDF)

나. 해양·수산업 동향

□ 인니 해양수산부, 양식 어류 품질 인증 제도 강화

- 인니 해양수산부는 안전한 어류 소비와 양식 어류의 품질 강화를 위해 CPIB 인증 제도를 운영 중임. 이 인증은 인력, 시설, 수질, 사료, 질병 예방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한 부화장에 부여되어 식품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부는 47개 기술 실행 단위를 통해 현장 지원과 감독을 지속하고 있음.

□ 라마단 기간 어류 공급 안정 점검

- 2025년 3월 15일, 해양수산부 수산업 진흥국장은 라마단과 이드 알-피트르를 앞두고 누산타라 어항을 방문해 어민들과 사후르를 함께 하며 어류 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어획물 안정 공급과 어민 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함. 또한, 냉장 시설과 유통 시스템 점검, 현안 논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 방안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어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음

□ 라마단 기간 ‘어류 단백질 패키지’ 전국 나눔

- 2025년 라마단을 맞아 인니 해양수산부는 ‘라마단 사파리’ 활동으로 전국에 통조림 생선, 가공 어류, 생필품, 신선·냉동 생선, 쿠란 등을 포함한 어류 단백질 패키지를 전달했으며, 민간 및 국영

기업들과 협력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생선 소비 촉진과 산업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함.

다. 기타사항

- 이슬람국가의 명절인 '라마단' 소개
 - 라마단은 무슬림들에게 금식과 기도, 자선의 달로 여겨지는 신성한 시기로, 올해 2025년에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었음.
 - 이 기간 동안 무슬림들은 해가 떠 있는 동안 음식과 물을 삼가고, 해질 무렵부터 새벽까지 식사를 하며 영적인 수련과 자선 활동에 집중함. 라마단이 끝나면 이틀 피트리(Eid al-Fitr)라는 큰 명절이 열려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기도와 축하하는데, 인도네시아처럼 이슬람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는 이 시기가 연중 가장 큰 명절로 음식 소비도 급증함
 - 이는 금식 보상 심리, 제한된 식사 시간에 의한 과식, 그리고 자선 목적의 음식 나눔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정부는 농수산물 수급을 면밀히 관리합니다.

◆ 5월 보고서

가.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2025.05.02	Pertamina	Rp15,900(\$0.97) per Liter	디젤유(MDF)

나. 해양·수산업 동향

- 인도네시아 수산물 수출절차 전면 디지털화
 - 인도네시아는 수산물 수출 절차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Siap Mutu'라는 디지털 플랫폼을 도입함. 이를 통해 수출업체는 품질·안전 인증서(SMKHP)를 전자 방식으로 빠르게 신청·발급

받을 수 있으며, QR코드가 포함된 인증서는 해외에서도 쉽게 확인 가능해졌음. 이 시스템은 INSW와 연동되어 전자 결제, 데이터 자동 검토,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 등 통합적인 기능을 제공하며, 이미 일부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시범 운영 중임.

- 정부는 노르웨이 등과의 전자 인증 협력을 통해 디지털 수출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이번 시스템 도입은 해양수산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로 평가됨.

□ 인도네시아 외교성과: 참치어획 쿼터 확대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KKP)는 2025년 4월 프랑스 라레위니옹에서 열린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회의에서 참치 어획 쿼터 확대라는 중요한 외교적 성과를 거둠.
- 이번 회의에서 인도네시아는 빅아이 참치 어획 쿼터를 기존보다 2,791톤 늘어난 21,396톤으로 확보하였고, 가다랑어는 138,000톤, 옐로핀 참치는 2025년 기준 45,426톤으로 조정되었음. 인도네시아는 총 14개의 주요 제안을 채택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상어 보호와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VMS) 강화 등의 조치도 포함되었음.
- 또한, 몰디브, 남아프리카,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과의 연대를 통해 연안국가동맹(Coastal States Alliance)의 공식화를 추진하며 개발도상국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음.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보고 및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블루 이코노미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인도네시아 - 중국 간 수산업 투자 및 무역 협력 강화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중국 저장성에서 열린 무역·투자 콘퍼런스에 참석해 어업, 양식, 가공,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블루이코노미 실현을 위해 민관 파트너십과 투자유치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는 인허가 간소화, 세제 혜택,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투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 중임.

- 2024년 기준, 인도네시아는 대중국 수산물 수출에서 1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약 11억 5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였으며,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오징어·문어류, 해조류, 새우, 게 등이 있고, 수입 품목에는 냉동 고등어와 오징어류 등이 포함됨.

◆ 6월 보고서

가.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2025. 6. 3.	Pertamina	Rp15,980(\$0.98) per Liter	디젤유(MDF)

나. 해양·수산업 동향

□ 인도네시아 수산부, 전국 어항 운영 수준 대폭 강화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KKP)는 전국 어항의 운영과 관리를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현대적인 체계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어항의 미비한 운영 체계, 작업자 안전 및 위생 문제, 무단 출입, 해양 생태계 위협, 항만 사용료 체납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임. 정부는 항만 시설 현대화와 디지털 서비스 전환, CCTV 및 센서 기반 통합 감시 체계 구축, 법적 구역화 정비, 비수산 활동과의 분리, 치안 당국과의 협력 강화를 포함한 종합 대책을 추진함.
- 이번 개편은 항만을 수산업 생산·유통의 핵심 거점으로 재정비하고, 투명성·효율성·법 집행 일관성 등 ‘좋은 행정’ 원칙을 반영하여 인도네시아 어항을 국내외 기준에 부합하는 현대적인 항만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임. 이를 통해 어항은 인도네시아 블루 이코노미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게 될 전망이다.

□ 지역특산 수산물 등록제 추진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지역 특산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리적 표시(Indigeo) 등록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지리적 표시는 특정 지역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에 기반한 제품에 부여되어 품질과 고유성을 인증하며,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제도임. 현재까지 해양수산제품 중 11개만이 등록되었지만, 잠재 후보는 훨씬 많아 해양수산부는 법무인권부 지식재산권 총국과 협력하여 기술 조정 포럼을 개최하고, 지방정부 실무자 교육도 진행 중임.
- 실제 등록 효과도 뚜렷하다. 발리 아메드 소금은 등록 이후 가격이 4배 상승했고, 톱복 진주는 약 3배 인상되며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음. 지리적 표시는 또 인도네시아 고유 수산 자원의 무단 사용과 명칭 도용을 막는 법적 보호 수단으로, 해양수산부는 향후 등록 품목을 지속 발굴하고 지역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지리적 표시 제품의 국내외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방침임.

□ 청년참여 확대 통한 새우양식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 인도네시아 양식업에 젊은 세대의 참여가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 정부는 청년층이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산 양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청년농업인협회(PMI) 등과 협력해 다양한 기회를 확대하고 있음. 최근 발리 반둥에서 열린 새우 양식 회의(SAC)에는 국내외 수백 명이 참석해 청년 농업인들이 최신 기술을 배우고 양식 혁신을 공유하는 장이 마련되었음.
- 또한, 해양수산부는 중부 자바 케부멘 지역에 지역 기반 새우 양식 모델(BUBK)을 도입해 친환경 현대 기술을 활용한 새우 양식장을 운영 중임. 100헥타르 규모의 잠재지를 가진 이 지역에는 189개 양식장이 운영되며, 수질 회복과 생태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음.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갖고 있으며, 고품질 새우에 대한 수요가 높아 청년층의 양식업 참여는 식량 안보와 경제 성장, 자원 보호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됨.

6. 가나

◆ 4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Afko	Afko 805	2025-03-16/	금어기 채항 및 수리	Tema	채항중
BSK Marine	AP 703	2024-10-28/	금어기 채항 및 수리	Tema	채항중
Panofi	Master	2025-03-16/	금어기 채항 및 수리	Tema	채항중
Panofi	Commander	2025-03-16/	금어기 채항 및 수리	Tema	채항중
Panofi	Queen	2025-03-16/	금어기 채항 및 수리	Tema	채항중
Panofi	Path finder	2025-03-16/	금어기 채항 및 수리	Tema	채항중
Panofi	Grace	2025-03-16/	금어기 채항 및 수리	Tema	채항중
Panofi	Fore runner	2025-03-16/	금어기 채항 및 수리	Tema	채항중
DH	Sea plus 87	2025-03-16/	금어기 채항 및 수리	Tema	채항중
DH	Iris 3	2025-03-16/	금어기 채항 및 수리	Tema	채항중
DH	Iris Queen	2025-03-16/	금어기 채항 및 수리	Tema	채항중
Agnes Park	Agnes 1	2025-03-16/	금어기 채항 및 수리	Tema	채항중
Rico	Rico Siete	2025-03-16/	금어기 채항 및 수리	Tema	채항중
Dicha venture	Dicha Uno	2025-03-16/	금어기 채항 및 수리	Abidjan	채항중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03.31	GHANA OIL(GOIL)	USD 830 / KI	MGO	양상급유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Yellowfin tuna	10kg up	USD 2,250 / Mt	
Yellowfin tuna	10kg under	USD 1,800 / Mt	
Skip jack tuna	3.4kg up	USD 1,500 / Mt	
Skip jack tuna	1.8kg up	USD 1,450 / Mt	
Skip jack tuna	1.5kg up	USD 1,300/ Mt	
Skip jack tuna	1.5kg under	USD 1,150 / Mt	

라. 대외 활동 내역

일자/장소	지원(협의) 회사(기관)	지원(협의) 내용
2025.03.10. / Tema	가나 수산양식부 Tema 사무소	센터를 경유 부경대 박사과정 장학생 추천
2025.03.17. / Tema	재가나 대사관	센터를 경유 항만 협회 가나 ODA 사업 담당자 확인

마. 해양·수산업 동향

□ 해적 가나 어선 공격: 중국 선원 3명 납치

- 2025년 3월 28일, 가나 해역에서 가나 선적 트롤 어선 '명신 7호'가 해적의 공격을 받아 중국 국적 선장, 갑판장, 기관장 3명이 납치되었음. 무장한 해적 7명은 오후 5시 53분경 어선을 습격해 3시간 가량 머무르며 선원들을 감금하고 물품을 탈취한 뒤 도주했음. 선원들은 사건을 해안 가까이에서 보고했고, 선박은 이후 Tema 항에 무사히 도착해 해양 경찰과 군의 조사를 받았음. 가나 당국은 ECOWAS 다국적 해양 조정센터를 통해 인근 국가에 경고를 발령하고, 납치된 선원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힘.

□ 2025년 카누 어부를 위한 금어기 면제 - 수산부 장관 성명

- 2025년 수산 양식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카누 어부들에게 한시적으로 금어기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으며, 중형 산업형 어선에는 기존대로 금어기가 적용됨. 정부는 그동안 금어기 중 구호 식량을 제공했지만 전달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금어기 종료 후의 어업 압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관리 방안도 추진할 계획임. 카누 어민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생계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어기 시기 조정도 제안했고, 전국 카누 어민 협의회는 이번 조치가 2025년 한 해 동안만 적용되는 임시 조치임을 밝히며 지속 가능한 어업 노력을 강조함.

□ 가나 수산부 장관, 프리믹스 연료 관리 부실에 대한 단속 선언, 새로운 시장 계획 발표

- 가나 수산양식부 장관 에밀리아 루이사 아서는 Tapa Abotoase 학교 설비 시운전 행사에서 수산업의 부패와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개혁 조치를 발표하며, 프리믹스 연료의 사재기·편애·불법 판매를 막기 위해 지역 코디네이터 제도를 폐지하고, 연료 수익금을 지역 개발에 직접 활용하겠다고 밝혔음. 내륙 어부들의 요구에 따라 아크라에 다목적 어시장 설립도 추진 중이며, 교통부와 협력해 열악한 수상 운송 환경 개선과 안전한 보트 보급도 약속함. 장관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교육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도 투자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이러한 개혁은 현장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고 있음.

◆ 5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Afko의 모든 수산사	Afko 805호 외 모든 참치 어선	2025-03-16/	금어기 채항 및 수리	Tema	4월 30일 까지 금어기로 전 선박 채항중. 선박입출항 동향은 25년 3월 보고서 와 동일함.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04. 30.	GOIL	USD 790 / KI	MGO	양상급유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Yellowfin, Skip jack	10kg up ~1.5kg under	3월 가격과 동일	금어기로 판매 기록이 없음

라. 해양·수산업 동향

- 가나, 부산에서 열리는 제10차 ‘Our Oceans’ 컨퍼런스에 참가해 해양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지 재확인
 - 가나는 2025년 4월 28일 부산에서 열린 제10차 Our Ocean Conference에 참가하여 지속 가능한 해양 거버넌스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음. 가나 대표단은 Emelia Arthur 수산부 장관이 이끌었으며, 한국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참석하였음.
 - 가나는 제9차 회의에서 약속한 해양 보호 구역(MPA) 설립에 대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미국의 관련 지원 중단에 따른 도전과제를 설명했다. Arthur 장관은 새로운 파트너십을 모색하며, 개발도상국 해안 지역의 지속 가능한 생계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음.
 - 부대 행사로는 환경정의재단(EJF) 전시회가 있었으며, 가나는 어업 관리의 투명성과 혁신 사례에 대해 발표하였음. 또한 Arthur 장관은 John Kerry 전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불법 어업 대응 및 해양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협력을 논의했음.
 - 이번 회의는 아프리카, 특히 서아프리카의 해양 지속 가능성에 대한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전달하고,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 Arthur 수산양식개발부 장관 , 블루 이코노미 위원회 첫 회의 주제
 - 가나는 해양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주요 조치로 Emelia Arthur 수산양식개발부 장관 주제 하에 블루 이코노미 위원회(BEC)의 첫 회의를 개최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법률 조정, 공공-민간 협력, 지역사회 참여 등을 포함한 전략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IUU어업 대응, 친환경 기술 도입, 지속 가능한 양식업 육성 등을 핵심 목표로 하며, 장관은 이를 통해 블루 이코노미를 국가 성장의 축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음. 또한 반복적인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해 트롤선 4척의 면허를 1년 정지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음.

◆ 6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Afko	Afko 805	2025-03-15/	금어기 채항 및 수리	Tema	수리중
Afko	Afko 808	2025-03-15/	가나 신규 영복호 대체선 영입	Tema	국적변경 및 어업 허가 절차 진행 중
Panofi	Master	2025-03-15/ 2025-05-01	금어기 채항 및 수리	Tema	조업중
Panofi	Commander	2025-03-15/ 2025-05-01	금어기 채항 및 수리	Takoradi	조업중
Panofi	Queen	2025-03-15/ 2025-05-01	금어기 채항 및 수리	Takoradi	조업중
Panofi	Discoverer	2025-03-15/ 2025-05-01	금어기 채항 및 수리	Tema	조업중
Panofi	Path finder	2025-05-30/	하역	Tema	하역중
Panofi	Grace	2025-03-15/ 2025-05-01	금어기 채항 및 수리	Tema	조업중
Panofi	Fore runner	2025-03-15/ 2025-05-01	금어기 채항 및 수리	Tema	조업중
DH	Sea plus 87	2025-03-15/ 2025-05-01	금어기 채항 및 수리	Tema	조업중

DH	Iris J	2025-05-22/ 2025-05-26	하역	Tema	조업중
DH	Iris Queen	2025-03-15/	금어기 채항 및 수리	Tema	채항 수리중
Agnes Park	Agnes 1	2025-05-23 / 2025-05-27	하역	Tema	조업중
Rico	Siete	2025-03-15 / 2025-05-15	금어기 채항 및 수리	Tema	조업중
Dicha Venture	Dicha Uno	2025-05-28/	하역	Abijdan	하역중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05. 31.	GOIL	USD 750 / Kl	MGO	양상급유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Yellowfin tuna	10kg up	USD 2,200/MT	
Yellow fin tuna	10kg under	1,760	
Skip jack tuna	3.5kg up	1,500	
Skip jack tuna	1.8kg up	1,450	
Skip jack tuna	1.8kg under	1,300	
Skip jack tuna	1.5kg under	1,150	

라. 대외 활동 내역

일자/장소	지원(협업) 회사(기관)	지원(협업) 내용
2025. 05. 31./ Tema 해양대학 내 해변	재 가나 한국대사관	해변정화운동 사무실 직원 가족 동반 참여

마. 해양·수산업 동향

□ GMA, 난파선 제거에 관한 법률 시행

- 가나 해양청(GMA)은 당국의 허가 없이 난파선 잔해를 제거하거나 소지한 개인들을 체포하고, 철재 부품을 해상에서 압수하였음. GMA 사무총장 Kamal Deen Ali 박사는 난파선이 생태계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이기도 하므로, 무단 제거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신중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이 지역이 잘 규제된 안전 구역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히며, 위반자에게는 절취물 압수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렸음.

□ FCWC WATF, 가나 수산청 회의 완료

- 기니 서중부만 어업 위원회(FCWC)와 서아프리카 태스크포스(WATF)는 SIF, TMT, 글로벌 어업 감시국(GFW)과 함께 가나 어업 위원회(FC) MCS 부서의 후원으로 3일간 기관 간 워크숍을 개최했음. 이 회의에서는 항만국 조차 협정(PSMA) 이행, 위험 평가 부서 설립,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중심으로 가나의 어업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VMS 통합 및 어선 기록 구축의 기술 지원 가능성도 검토되었음.
- 워크숍에서는 불충분한 정보 공유, 협력 부족, SOP 미흡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SOP 개발과 Vessel Viewer 앱 활용 실습이 진행되었음. 참가자들은 어업 관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 간 운영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음.

□ 가나 타국과의 수산업 관련 교류 협력 증진

- 가나는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서 열린 제11차 ATLAFCO 전문가 회의와 모로코 라바트의 대서양 아프리카 국가 고위급 포럼에 참석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과 블루 이코노미 강화를 위한 지역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가나 대표단은 어업 감시, 항만 검사, 어선 기록 등 주요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했으며, 해양법 집행, IUU 어업 퇴치, 과학 기반 정책, 지역 데이터 공유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 Emelia Arthur 수산장관은 연설에서 협력적 해양 거버넌스와 해양 과학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국 대사와의 회담을 통해 어업법 개선, 오염관리, 인프라 지원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PSMA에 중국이 가입한 것은 가나의 지속 가능한 어업 발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7. 세네갈

◆ 4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SENEGAL	PAVILLON ESPAGNOL	2025-03-02 / 2025-03-06	하역	다카르항	
SENEGAL	GRANADA	2025-03-05 / 2025-03-08	하역	다카르항	
SENEGAL	ORIENTAL KIM	2025-03-15 / 2025-03-18	하역	다카르항	
SENEGAL	SEA BREEZSEA	2025-03-18 / 2025-03-22	하역	다카르항	
SENEGAL	WESTRM KIM	2025-03-20 / 2025-03-25	하역	다카르항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03. 26.	다카르항	575 EURO/L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YF	10kg up	\$1,765/MT	
YF	3.4-10kg	\$1,665/MT	
YF	1.8-3.4kg	\$1,565/MT	
YF	1.5-1.8kg	\$1,415/MT	
YF	1.5kg under	\$1,215/MT	
SJ	3.4kg up	\$1,615/MT	
SJ	1.8-3.4kg	\$1,565/MT	
SJ	1.5-1.8kg	\$1,415/MT	
SJ	1.5kg under	\$1,215/MT	
BE	10kg up	\$1,415/MT	
BE	3.4-10kg	\$1,415/MT	
BE	1.8-3.4kg	\$1,415/MT	
BE	1.5-1.8kg	\$1,265/MT	
BE	1.5kg under	\$1,065/MT	

◆ 5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Senegal	WESTRM KIM	2025-04-08 / 2025-04-11	하역	다카르항	
Senegal	PLAYA DE NDJA	2025-04-08 / 2025-04-10	하역	다카르항	
Senegal	XIXILI	2025-04-17 / 2025-04-19	하역	다카르항	
Senegal	SEA DEFENDER	2025-04-21 / 2025-04-23	하역	다카르항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04. 26.	다카르항	522 EURO/MT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YF	10kg up	\$1,765/MT	
YF	3.4-10kg	\$1,665/MT	
YF	1.8-3.4kg	\$1,565/MT	
YF	1.5-1.8kg	\$1,415/MT	
YF	1.5kg under	\$1,215/MT	
SJ	3.4kg up	\$1,615/MT	
SJ	1.8-3.4kg	\$1,565/MT	
SJ	1.5-1.8kg	\$1,415/MT	
SJ	1.5kg under	\$1,215/MT	
BE	10kg up	\$1,415/MT	
BE	3.4-10kg	\$1,415/MT	

BE	1.8-3.4kg	\$1,415/MT	
BE	1.5-1.8kg	\$1,265/MT	
BE	1.5kg under	\$1,065/MT	

라. 해양·수산업 동향

□ 다카르항에서 대담한 차량 절도

- 2025년 4월 10일 새벽 3시경, 다카르항에서 대담한 차량 절도 사건이 발생했음. 용의자는 최근 미국에서 귀국한 마마두 사르(Mamadou Sarr)로, 현재 통관 보조 업무를 하며 일하고 있었음. 그는 변호판도 부착되지 않은 르노(Renault) 308 차량을 훔쳐 달아남. 이 차량은 몰 3 구역에서 통관 절차를 기다리며 보관 중이었으며, 공식 출고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였음
- 사르(Sarr)는 항만 경비원 지비 케이타(Djiby Keita)와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며, 경비의 허점을 이용해 차량을 몰고 몰 2를 통해 도주함. 이 모습을 본 헌병이 있었지만 제지하지 못했음
- 신속히 상황을 접수한 마마두 디아뉴(Mamadou Diagne) 중대장은 부대를 긴급 투입해 추격에 나섰고, 도심 중심가인 독립광장에서 사르(Sarr)를 검거함. 당시 사르(Sarr)는 택시 안에 있었으며, 차량의 방전된 배터리를 살리기 위한 충전 케이블을 소지하고 있었음.
- 초기 조사에서 사르는 단순히 경비원에게 맡겨둔 휴대폰 충전기를 찾으러 갔다고 진술했으나, 결정적인 증거와 추궁 끝에 차량 절도 사실을 자백했음. 차량 소유주가 인도가 늦어진 데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사르(Sarr)는 무리하게 차량을 먼저 넘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음. 그는 차량을 인도할 자격이나 허가서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음. 현재 마마두 사르(Mamadou Sarr)는 유치장에 구금돼 있으며, 오는 수요일 다카르 검찰에 송치될 예정임.

□ 2025년 세네갈 국제어업 및 양식 박람회

- 세네갈 정부의 비전에 따라 2025년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수산물 가치화와 블루 이코노미를 위한 수산물 생물 다양성 보존” 이

라는 주제로 2025년 세네갈 국제어업 및 양식 박람회를 개최하였음. 이 행사는 수산, 양식, 기술분야 전문가들을 위한 중요한 만남의 장이 될 것임.

□ 세네갈 갈치 어획량 급감... 교민 생계 위협, 사업자 해외로 발길

- 세네갈 교민들의 주요 생계수단 중 하나인 갈치 어획량이 해마다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특히 올해는 작년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현지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음. 이러한 어획량 감소는 단순한 자연변화가 아닌 산업 전반의 구조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세네갈 정부는 육상 생선 가공공장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어획량 감소로 인해 갈치 사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수익성 악화와 불확실한 전망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사업자들이 세네갈을 떠나 어획 여건이 나은 인근 국가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임.

◆ 6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Senegal	PLAYA DE LAGA	2025-05-03 / 2025-05-07	하역	다카르항	
Senegal	EGALUZE	2025-05-07 / 2025-05-11	하역	다카르항	
Senegal	ALBONICA	2025-05-17 / 2025-05-20	하역	다카르항	
Senegal	ZEBERoi	2025-05-18 / 2025-05-19	하역	다카르항	
Senegal	GRANADA	2025-05-18 / 2025-05-21	하역	다카르항	
Senegal	WESRTM KIM	2025-05-18 / 2025-05-20	하역	다카르항	
Senegal	POINT DE ST	2025-05-21 /	하역	다카르항	

	LOUIS	2025-05-14		
--	-------	------------	--	--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05. 26.	다카르항	520 EURO/MT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YF	10 Kg Up	\$1,580/MT	
YF	3.4~10kg	\$1,480/MT	
YF	1.8~3.4kg	\$1,380/MT	
YF	1.5~1.8kg	\$1,230/MT	
YF	1.5kg under	\$1,030/MT	
SJ	3.4kg up	\$1,430/MT	
SJ	1.8~3.4kg	\$1,380/MT	
SJ	1.5~1.8kg	\$1,230/MT	
SJ	1.5kg under	\$1,030/MT	
BE	10kg up	\$1,230/MT	
BE	3.4~10kg	\$1,230/MT	
BE	1.8~3.4kg	\$1,230/MT	
BE	1.5~1.8kg	\$1,080/MT	
BE	1.5kg under	\$880/MT	

라. 해양·수산업 동향

□ 격렬한 화재: 다카르 항구에서 선박에 불

- 2025년 5월 13일 화요일 오후 4시경, 다카르 자율 항구(Port autonome de Dakar)의 10번 부두에서 매우 강한 화재가 발생함. 불은 어업 전용 부두에 정박해 있던 선박 한 척을 완전히 삼켜 버렸고, 항만 노동자들 사이에 큰 혼란을 일으킴.
- PressAfrik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선박은 세네갈 수산업계의 주요 인물인 리바스 디오프(Libasse Diop), GAIPES(세네갈 어선·수산업자 연합) 회장의 소유로 알려졌다. 이는 세네갈 수산업에 큰 타격이 되는 막대한 손실임.
-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임. 소방대는 항만 보안 요원들의 지원을 받아 화재가 다른 선박이나 인근 시설로 확산되기 전에 진화를 마침. 인명 피해는 다행히 없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물적 피해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짐. 항만 당국은 현장을 안전하게 통제하고 초기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해당 부두의 작업을 일시 중단함.

□ 프랑스, 다카르 항구에 위치한 ‘콩트르아미랄 프로테(Contre-Amiral Protet)’ 구역을 세네갈에 반환

- 세네갈 주재 프랑스 대사관이 발표한 공식 성명에 따르면, 프랑스는 다카르 항구에 위치한 ‘콩트르아미랄 프로테’ 구역을 세네갈에 반환하기로 결정함. 2025년 2월 28일 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2년 4월 18일 프랑스공화국과 세네갈공화국 간에 체결된 군사 협력에 관한 조약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프랑스 측은 2025년 5월 15일 목요일, 다카르 항구에 위치한 ‘콩트르아미랄 프로테’ 구역을 세네갈 측에 반환함.
- 이어 같은 성명에서는 마레샬(Maréchal)과 생텍쥐페리(Saint-Exupéry) 구역은 이미 2025년 3월 7일에 반환되었으며, 다른 점유지들도 2025년 여름까지 반환될 예정이라고 밝힘.

8. 뉴질랜드

◆ 4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DW NEW ZEALAND LTD.	DONG WON530	2025-03-27/ 2025-03-28	유류 및 하역	TIMARU	
DW NEW ZEALAND LTD.	DONG WON519	2025-04-03/ 2025-04-04	유류 및 하역	TIMARU	
JAICO LTD	FORTUNNI	2025-03-25/ 2025-03-26	하역 및 연간 수리	DUNEDIN	
JAICO LTD	PACINUI	2025-03-21/ 2025-03-21	유류 및 하역	DUNEDIN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01.07	Z	931 USD/MT	MGO Dunedin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BARRACOUTA	2L/L/M/S	2150/2150/2050/- USD/MT
SQUID	2L/L/M/2M/S/2S	6450/6200/5850/5400/-/- USD/MT

라. 해양·수산업 동향

□ 뉴질랜드 양식 산업, 연 30억 달러 목표로 도약

- 뉴질랜드는 양식 산업을 연간 30억 달러 규모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 목표는 해양 및 어업 장관 셰인 존스가 말버러에서 열린 해블록 통합 및 해산물 축제에서 발표했다. 현재 뉴질랜드의 양식 산업은 연간 7억 6천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3,000명 이상의 뉴질랜드인을 고용하고 있음.
- 정부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해양 농장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개방 해양(open ocean) 양식을 통해 생산량을 늘릴 계획임. 또한
 마우리의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인프라 개선에도 힘쓸
 예정임. 특히 해블록 마리나 개선을 위해 지역 인프라 기금에서
 990만 달러를 대출해 지원할 계획임.

- 말버러 지역은 뉴질랜드 수출용 양식 제품의 약 60%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만 연간 약 6만 5천 톤의 초록입 홍합과 6천 톤의
 연어가 수확되고 있음.

□ 뉴질랜드가 남태평양 어업 회의에서 저층 트롤링 규제 강화를 차단함

- 뉴질랜드는 최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남태평양 지역 어업 관리
 기구(SPRFMO) 연례 회의에서 저층 트롤링 규제 강화를 저지함.
 뉴질랜드는 과거 저층 트롤링 규제를 주도하며 2023년 다수 국가와
 함께 새로운 규칙을 채택했지만, 2023년 11월 출범한 보수 연합
 정부는 입장을 바꿔 규제 시행을 차단하고 있음.
- 호주와 미국은 회의에서 해당 규칙의 전면 시행을 요구했으며,
 규칙에는 취약한 해양 생태계 종의 70% 보호와 트롤링 허용 해역의
 45% 축소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의 반대로 규칙 시행은
 내년으로 연기되었음. 세인 존스 해양 및 어업 장관은 규제 완화
 입장을 밝히며, SPRFMO 탈퇴 가능성까지 시사했음. 이에 대해
 환경 단체들은 과학적 권고를 무시하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음.

◆ 5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DW NEW ZEALAND LTD.	DONG WON530	2025-05-08/ 2025-05-09	유류 및 하역	TIMARU	
DW NEW ZEALAND LTD.	DONG WON519	2025-04-28/ 2025-04-29	유류 및 하역	TIMARU	
JAICO LTD	FORTUNNI	2025-04-28/ 2025-04-29	유류 및 하역	DUNEDIN	
JAICO LTD	PACINUI	2025-04-27/ 2025-04-28	유류 및 하역	DUNEDIN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04.01	Z	853 USD/MT	MGO Dunedin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SQUID	2L/L/M/2M/S/2S	6150/5600/5700/5500/3250/- USD/MT

라. 해양·수산업 동향

- 어업 트롤러의 혜택에 대한 의문
 - 뉴질랜드의 대형 트롤러는 해산물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연 20억 달러의 수익과 1만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지만, 해양 서식지 파괴와 혼획 등 환경 피해로 인해 규제 강화와 지속가능한 어업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트럼프 관세, 뉴질랜드 해산물 산업에 계속 변화하는 과제 던지다
 -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뉴질랜드 해산물에 최대 25%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수산업계에 큰 부담이 예상됨. 이에 따라 뉴질랜드는 아시아·유럽으로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와 노동력 부족 등 복합적 도전에도 대응하고 있음.

◆ 6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DW NEW ZEALAND LTD.	DONG WON530	2025-05-27/ 2025-05-28	유류 및 하역	TIMARU	
DW NEW ZEALAND LTD.	DONG WON519	2025-05-21/ 2025-05-22	유류 및 하역	TIMARU	

JAICO LTD	FORTUNNI	2025-05-18/ 2025-08-19	유류 및 하역	DUNEDIN	
JAICO LTD	PACINUI	2025-05-16/ 2025-05-17	유류 및 하역	DUNEDIN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05.28.	Z	861 USD/MT	MGO Dunedin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BARRACOUTA	2L/L/M/S	2000/1950/1850/- USD/MT
SQUID	2L/L/M/2M/S/2S	5200/5350/5750/5550/4250 USD/MT

라. 해양·수산업 동향

- 침입종 해조류 카울러파, 94억 달러 피해 위협, 러셀 및 베이 오브 아일랜드로 확산
 - 뉴질랜드 베이 오브 아일랜드에서 외래 해조류 카울러파가 급속히 확산되며 해양 생태계와 지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이 해조류는 보트와 낚시 도구 등을 통해 퍼질 수 있어 확산 속도가 빠르고, 토착 생물의 생존을 위협하며 최대 940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정부는 약 1,000만 달러 규모의 신기술 도입을 추진 중이며, 지역 단체들도 조기 대응에 나서고 있음.

- 하우라키 만 저층 트롤링 통로 제안 보류
 - 뉴질랜드 정부는 하우라키 만에서 추진되던 바텀 트롤링 통로 설정 제안을 잠정 보류하며, 해저 생태계 보호와 어업 활동 간 균형을 둘러싼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추가 연구와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정밀한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임.

9. 모리셔스

◆ 4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INPESCA-BERMEO (SPAIN)	TXORI BERRI (Oman Flag)	2025-01-25/ 2025-03-31	수리	포트루이스 (C.N.O.I)
NAVIERA GALDAR BERMEO (SPAIN)	IZAR ARGIA (Spanish Flag)	2025-03-09/ 2025-03-18	하역	포트루이스
	AFFINIS (Mauritian Flag)	2025-03-18/	하역 (운반선)	포트루이스
	SIERRA LARA (Bahamas Flag)	2025-04-02/	하역 (운반선)	포트루이스
ECHEBASTAR BERMEO (SPAIN)	JAI ALAI (Seychelles Flag)	2025-03-28	수리	포트루이스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04. 09.	V.I.V.O	USD 835/ per MT	MGO	

다. 해양·수산업 동향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부를 장관, 농업 및 수산 분야 협력 방안 논의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대표단이 지난 4일 포트루이스에서 아르빈 부를 (Arvin Boolell) 농업·식량안보·블루이코노미·수산부 장관을 만나, 모리셔스의 블루이코노미와 농업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향후 방향을 논의함.
 - AfDB 대표단은 현재 모리셔스를 일주일간 방문 중이며, 공공 및 민간 부문 이해관계자들과 다양한 주요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음. 대표단에는 남부 아프리카 지역 개발, 통합 및 사업 수행국 사무소의 국장인 레일라 모카뎀 (Leila Mokaddem), 부 국장이자 모리셔스 국가 책임자인 무노 무포톨라 (Moono Mupotola), 그리고 AfDB 이사인 제라르 파스칼 뷔시에 (Gérard Pascal Bussier) 가 포함되어 있음.

- 무포톨라 부국장은 회의 후 발표에서, 이번 논의는 블루이코노미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으며, 모리셔스 항구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석호(라군)의 고갈 문제와 수산 부문의 기술력 향상 방안도 논의되었음.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모리셔스, '마리타임 위크 아프리카 2025' 개최... 해양 연료 산업 미래 모색

- 마리타임 위크 아프리카 2025년 4월 9일 모리셔스 플릭 앙 플라크의 힐튼 리조트 앤 스파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병커 연료 구매자, 공급업체, 항만 당국 등 주요 업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프리카 해양 연료 산업의 미래 전략을 논의함. 이번 행사는 모리셔스가 처음으로 개최국으로 선정된 가운데, 아르빈 부를 모리셔스 장관은 환영사에서 자국을 지역 병커링 허브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 개혁과 민간 투자 유치를 강조했고, 낸시 카리기투 케냐 해양 특사는 블루이코노미가 아프리카의 발전 동력임을 언급함. 아루나 람사하 항만청 총국장 대행은 모리셔스 병커링 산업의 성장세와 향후 과제로 저장시설 확충과 국제 협력을 제시했으며, 주최 기관 ship.energy는 친환경 연료 전환과 투자 기회 등을 주제로 한 본 행사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병커링 행사임을 강조함.

□ 일본, 해양 안전 분야에서 모리셔스에 지속적인 지원... 10억 엔 규모 예산 지원

- 모리셔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약 10억 엔(약 3억 루피) 규모의 경제사회개발 보조금을 통해 예인선 한 척을 제공한 것에 감사를 표하며, 관련 서명식을 포트루이스에서 개최함. 예인선은 항만

작업뿐 아니라 해양 재난 대응에도 활용될 예정이며, 모리셔스는 이를 계기로 도쿄 대사관 신설, 2025 오사카 엑스포 및 TICAD IX 참가를 계획하고 있음. 모리셔스는 일본과의 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 협정 체결을 제안하며, 아프리카 진출 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을 강조했다, JETRO·JICA 사무소 유치도 희망했음. 일본 측은 이번 지원이 TICAD VIII에서 제시한 해양 안보 강화 구상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함.

◆ 5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ECHEBASTAR-BERMEO (SPAIN)	JAI ALAI (Seychelles Flag)	2025-03-28/	수리	포트루이스 (CNOI)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INPESCA-BERMEO (SPAIN)	TXORI BERRI (Seychelles Flag)	2025-04-12/	수리	포트루이스 (CNOI)
FRANCAISE DU THON OCEANIGUE-CONCARNEAU (FRANCE)	AVEL VAD (France Flag)	2025-04-17/ 2025-04-30	수리	포트루이스 (CNOI)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05.08	VIVO(SHELL)	USD 830	MGO	

◆ 6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ECHEBASTAR-BERMEO (SPAIN)	JAI ALAI (Seychelles Flag)	2025-03-28/ 2025-05-22	수리	포르투이스 (CNOI)
INPESCA-BERMEO (SPAIN)	TXORI BERRI (Seychelles Flag)	2025-04-12/ 2025-06-05	수리	포르투이스 (CNOI)
	IZAR ARGIA (Spanish Flag)	2025-05-01/ 2025-06-16	하역	포르투이스 (CNOI)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AFFINS (Mauritian Flag)	2025-05-16/ 2025-06-05	하역	포르투이스 (CNOI)
INPESCA-BERMEO (SPAIN)	Itsas Txori (Spanish Flag)	2025-05-26/	수리	포르투이스 (CNOI)
INPESCA-BERMEO (SPAIN)	Euskadi Alai (Seychelles Flag)	2025-06-02/	수리	포르투이스 (CNOI)
	Salgir (Panama Flag)	2025-06-05/	하역	포르투이스 (CNOI)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06.10.	VIVO(SHELL)	USD 785	MGO	

다. 해양·수산업 동향

□ 일본, 해양 생물다양성 전시관 개보수 지원

- 2025년 5월 19일, 일본 정부와 JICA의 지원으로 개보수된 모리셔스 알비온 수산연구센터 내 해양 생물다양성 전시관이 공식 개관되었음. 산호, 맹그로브, 해초, 멸종위기 해양종 등을 주제로 한 이 전시관은 해양 보전과 환경 교육의 핵심 시설로, 일본은 그간 수산 연구센터 건립, 양식업 기술 지원, MV Wakashio 유조선 사고 대응 등 다양한 협력을 지속해 왔음. 이번 개보수는 해양 문해력 향상과 미래 세대 교육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되며, 일본의 지원은 단순한 시설 보강을 넘어 모리셔스 해양 환경과 수산업 발전 전반에 폭넓은 기여를 해왔음.

□ 러시아와 모리셔스, 농업 및 해양 혁신 분야 협력 강화

- 러시아 농업부 장관 옥사나 루트는 모리셔스를 방문해 아빈 불렐 장관과 회담을 갖고, 농업, 관개, 수산, 해양 연구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 강화를 재확인했음. 양측은 러시아 훈련선 크루젠스테른호를 함께 방문했으며, 불렐 장관은 러시아의 전문가 훈련 지원 역사와 국제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양국의 오랜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공동 개발과 기술 교류 확대를 위한 의미 있는 계기로 평가됨.

□ 블루이코노미: 운영 해양학 발전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

- 모리셔스 포트루이스에서 열린 제20차 인도양 글로벌 해양관측시스템 (IOGOOS) 회의에는 모리셔스,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남아공 등 5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운영 해양학 발전과 연안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함. 모리셔스 정부는 블루이코노미를 국가 발전의 핵심으로 강조하며 항만 인프라, 에너지, 식량 안보, 기후 회복력 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회의에서는 전자 해양관측 플랫폼 구축, 데이터 통합 관리, 과학 기반 정책 수립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음. 이번 회의는 유엔 해양과학 10년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거버넌스와 국제 협력 증진에 기여한 계기로 평가됨.

라. 기타사항

□ 미국의 10% 관세 부과 이후, 대응을 위한 정상회의

- 미국의 10% 관세 부과에 대응해 모리셔스 정부는 경제 영향 평가와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외교·산업 장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협상을 추진 중임. 전략에는 양자 무역협정 추진, AGOA 수혜국 및 아프리카연합과의 공동 대응이 포함되며, 총리는 2025~2029년 무역 다변화, 경제 구조 개혁, 기술 혁신 등을 포함한 새로운 경제 모델을 통해 회복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음.

□ 파워쉽 도입 통한 전력 생산 능력 증대 발표

- 모리셔스 정부는 급증하는 전력 수요와 설비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항만 지역에 임시 발전용 파워쉽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전력 피크 수요는 600MW에 달하며, 중앙전력청(CEB)의 설치 용량은 626MW에 불과한 가운데 여름철 수요와 개발 확대 등으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정부는 민간 발전사업자와 협력해 2026년 1월까지 90~110MW의 추가 전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파워쉽은 5년간 임시 운영되며 에너지 안보 확보와 녹색 에너지 전환을 병행할 전략적 조치로 추진됨.

참고

명예해양수산관 현황 및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주소
남태평양 도서국	 오시영 (‘64년생)	Tel. +1684-699-8523	P.O.BOX 1583, Pagopago, American Samoa 96799
		Mobile +1684-258-9900	
		FAX +1684-699-8531	
사모아 (-1일+4시간)	 김종태 (‘68년생)	e-mail shiyeongoh@hotmail.com	44 Pathik Namadi Heights, Suva, Fiji
		임기 '23.10.15. ~ '25.10.14.	
		Tel. +679-330-7188	
피지 (+3시간)	 정승화 (‘65년생)	Mobile +679-999-2523	P.O.Box 619, Gordons, N.C.D., Papau New Guinea
		FAX +679-331-1705	
		e-mail ckpfj@naver.com	
파푸아뉴기니 (+1시간)	 이상우 (‘75년생)	임기 '24.06.01. ~ '26.05.31.	Marcos Sastre 1660 Mar del plata Bs.As Argentina c.p 7600
		Tel. +675-321-8137	
		Mobile +675-7928-8888	
남아메리카	 박상천 (‘65년생)	FAX +675-321-4224	Rukan Avenue Nomor 8-135 Perumahan Jakarta Garden City Cakung Timur Jakarta 13910 Indonesia
		e-mail jc651016@gmail.com	
		임기 '23.05.10. ~ '25.05.09.	
동남아시아	 이윤홍 (‘60년생)	Tel. +54-223-495-0712 /493-4934	HOUSE NO. RP/2/19, COMM2, NEAR FISHERIES BLDG, PMB COMM 1, TEMA, GHANA
		Mobile +54-9-223-546-3919	
		e-mail kargeexport@gmail.com	
아프리카·대양주	 김점봉 (‘67년생)	임기 '24.06.01. ~ '26.05.31.	km 9.5 Rte de Rufisque BP: 3479 Dakar, Senegal
		Tel. +62-21-2287-4165	
		Mobile +62-821-2534-3214	
가나 (-9시간)	 윤정환 (‘52년생)	FAX	PO BOX 20473 Bishopdale(P.C8 543) 335 West Coast Road, Templeton,(P.C7 676)Christchurch, New Zealand
		e-mail scpark@hyundaimovex.co.id	
		임기 '23.10.15. ~ '25.10.14.	
세네갈 (-9시간)	 이동춘 (‘62년생)	Tel. +233-303-200995	International Korean Marine Ltd. Albion Docks, Trou Fanfaron Port Louis, Mauritius 11230
		Mobile +233-24-2168654	
		FAX +233-303-200933	
뉴질랜드 (+3시간)	 김동춘 (‘62년생)	e-mail skshipafrica@yahoo.com	International Korean Marine Ltd. Albion Docks, Trou Fanfaron Port Louis, Mauritius 11230
		e-mail sskmarco@yahoo.com	
		임기 '24.06.01. ~ '26.05.31.	
뉴질랜드 (+3시간)	 김점봉 (‘67년생)	Tel. +221-33-853-0850	km 9.5 Rte de Rufisque BP: 3479 Dakar, Senegal
		Mobile +221-77-880-9080	
		FAX +221-33-853-0851	
뉴질랜드 (+3시간)	윤정환 (‘52년생)	e-mail senegalkim@gmail.com	PO BOX 20473 Bishopdale(P.C8 543) 335 West Coast Road, Templeton,(P.C7 676)Christchurch, New Zealand
		임기 '24.01.04. ~ '26.01.03.	
		Tel. +64-3-344-1617	
뉴질랜드 (+3시간)	윤정환 (‘52년생)	Mobile +64-27-437-6210	International Korean Marine Ltd. Albion Docks, Trou Fanfaron Port Louis, Mauritius 11230
		FAX +64-3-3444-1617	
		e-mail seajho@xtra.co.nz	
뉴질랜드 (+3시간)	윤정환 (‘52년생)	임기 '24.08.20. ~ '26.08.19.	International Korean Marine Ltd. Albion Docks, Trou Fanfaron Port Louis, Mauritius 11230
		Tel. +230-217-1700	
		Mobile +10-5796-5453	
인도양	윤정환 (‘52년생)	FAX	International Korean Marine Ltd. Albion Docks, Trou Fanfaron Port Louis, Mauritius 11230
		e-mail kmarinelee@gmail.com	
		임기 '23.10.15. ~ '25.10.14.	